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구원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7장40-50절

Tag:

4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 이르시되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졌는데

42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43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눅7:40-50)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을 초월하는 것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아님.

-세상은 악한 것, 천국은 선한 것. 이런 이분법적 이해는 곤란함.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것, 세상에 목을 매지 않는 것,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세상에 현혹되지 않는 것, 가장 핵심적인 표현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속한다는 것은 세상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국민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면 그 계좌번호는 국민은행에 소속된 번호이다. 그 계좌번호는 농협에서 통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내 전화번호가 KT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번호는 결코 SK소속 번호가 아니다. (통신사 이동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육군이면서 동시에 공군일 수 없으며, 17사단 100연대 1중대 1소대 1분대원이면서 동시에 2분대원일 수 없다. (제대하면 그만)

-한국시민이면서 동시에 미국시민이 될 수 없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을 뿐이고, 그도 반드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만 한국 영토 내에서만 한국인으로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종이 될 수는 없다.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 아닌 것.

-세상을 떠나 사는 것(나 혼자 사는 것;전원생활을 즐기는 것-세속을 떠나 사는 것)

-수도원 생활(경건생활)

-영적 세계 속에서 사는 것(변화산 생활처럼)

-세상적 욕구들로부터 떠나 사는 것(스님이 고기를 거부하는 것, 여호와의 증인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 안식교인이 육식을 거부하는 것,

기독교인이 술 담배를 거부하는 것, 이슬람이 돼지고기를 거부하는 것, 등)

-사람들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끼리끼리 사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특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것이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을 초월한다는 개념의 반대 개념으로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다. 소속이 두 개인 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나라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초월하여 생활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존재이므로 구원은 곧 세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본 트랩 남작 일가가 오스트리아를 탈출할 때 나치에게 쫓기며 수녀원에 숨어드는데, 그때 수녀가 독일군에게 거짓말을 한다. 오스트리아를 독일이 통치하고 있지만, 그녀는 독일에 충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성호를 그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속의 법이 충돌할 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대놓고 반항하거나 그들이 정한 법을 보이는 곳에서 보라는 뜻이 어기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명제는 악법이니까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시행력이 있다는 의미

로 해석해야 한다. 민식이 법이 악법이지만, 스쿨존에서는 기어 가야 하며, 아니면 아예 돌아가야 한다.

등장인물 : 시몬과 그의 바리새인 무리들, 죄를 지은 한 여자
바리새인 무리들의 특징: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자신은 죄인들과 구별되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우월감이 있는 자들.

-날마다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하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꼬박꼬박 헌금하는 자들.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사람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자신들의 유식한 지식과 드높은 지위로 편안한 삶을 누리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도 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적게 받는 자들.

죄를 지은 한 여자의 특징:

-순진하고 가난해서 여러 남성들에게 이용당하면서 결국에는 죄를 지은 여자로 소문난 여인.

-가난하고 무력해서(or 무서워서) 창피하다고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도 없는 여인.

-비록 무시를 당하며 또 다른 남성들에게 속게 되겠지만, 가난해서 있을 곳이라도 있는 이 지방을 떠날 수도 없는 여인.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게 된 여인.

-당시 그 어느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취급당하지 못하던 여인이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한 사람의 인격을 지닌 여성으로 대접받은 경험을 한 여인.

비교;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제공해 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면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기 때문이겠지만, 그래도 주인인데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기는 것이 예의였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제자들의 틈에 끼어 억지로 들어왔을 것이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어내고 있었다. (식사를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하기 때문에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

-아무도 예수님의 발에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이었을 뿐.

-유대인의 풍습에 따르면 사람을 초대하면 주인이 나와 손님을 맞을 때 그 볼에 입을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시몬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을 나사렛 촌사람으로 여겼고, 정중하게 대접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다고 여겼을 것이고, 일종의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초대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닦아 내고 있었다.

-또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바르는 풍습이 있었다. 당연히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다. 이것은 적극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아마 이후로 이 여인은 마리아와 함께 여전도회원으로 적극적인 교회생활과 경건생활을 이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 여인은 세속적인 삶에서 완전히 떠나 교회생활에 올인하였을 것이다.

-교회에서는 이 여인의 과거 행적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혹 알고 있더라도 그것으로 이 여인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 여인은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왜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었고, 모든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수근거림에 휘둘리

지 않았다.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에 대해 뒷담화 하는 바리새인들이 마귀적인 태도로 여인을 판단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눈길을 개의치 않고 용감하게 들어와 적극적인 헌신의 행보를 보인 이 여인이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요 승리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여인 중 당신은 누구입니까?

<찬양예배>

제목 : 창세기 원역사 3

성경: 창세기 3장

Tag:

창세기 3장